

아시아현대미술전 2016

전시기간 2016. 9. 2 (금) - 11. 27 (일)
 개막식 : 9. 2 10:3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
 관람시간 10:00 - 18:00 입장권 구입 17:00까지
 전시문의 063)290.6888 <http://www.jma.go.kr>
 관람요금

구분		입장료		판매처
		성인	청소년(초·중·고)	
일반	개인	5,000	3,000	현장판매
	단체(20명 이상)	4,000	2,000	
할인	NH 채움카드 (체크카드 포함)	· 2인 이상 결제시 20% 할인 · NH비씨카드, 법인가드 제외 · 소정의 예산 초과시 행사 종료		
	전북 투어패스	· 전라북도발행 전북투어패스 소지자 단체요금 적용		
	예술인 패스	· 20% 할인		
	온라인 예매	·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 개인 1,000원 할인		
무료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군인 · 장애인 (1~6급 동반인까지), 미취학 아동 (만 5세 이하) · 신분증 제시, 매표소에서 무료티켓 발급 필수 · 초·중·고·유치원 단체(20명 이상)의 경우 인솔자 무료			인터넷판매

아시아 청년 국제교류 워크숍 2016. 9. 3 (토) 10:00 ~ 9. 6 (화) 20:00
 전주전통문화관 다행(주간)/어사화(야간)

무료 체험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장소
개인/단체	전시설명 진행(도슨트) 전시 활동지 풀이 '아시아는 내 친구' 체험활동	전시실 체험실 (1층)

* '아시아는 내 친구'는 전시체험 활동지에 부착된 '미술가에게 쓰는 편지, 그림, 전시 감상문' 부분을 작성하여 체험실에 준비된 아시아 지도에 붙이는 체험활동입니다.

유료 체험프로그램

프로그램		체험비	운영시간	장소
나도 아시아 현대 미술가 전시작품 이미지를 이용 하여 기념품 제작	एको백 만들기	8,000	1회 - 10:30~11:10 2회 - 11:30~12:10 3회 - 13:30~14:10 4회 - 14:30~15:10 5회 - 15:30~16:10 6회 - 16:30~17:10	체험실 (1층) * 1일 40분 6회 운영 * 단체 - 사전예약 * 개인 - 현장예약
	필통만들기	5,000		
	악세사리 만들기	3,000		

* 단체예약 _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http://www.jma.go.kr>) → 교육/행사 → 체험/문화행사
 * 문의 _ 063) 290, 6877
 * 본 체험은 미술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원기리1068-7)
 Tel. 063-290-6888 / Fax. 063-290-6879,6889

후원 NH농협

아시아현대미술전 2016
 2nd ASI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ASIA YOUNG 36

아시아청년 36

2016. 09. 02 - 11. 27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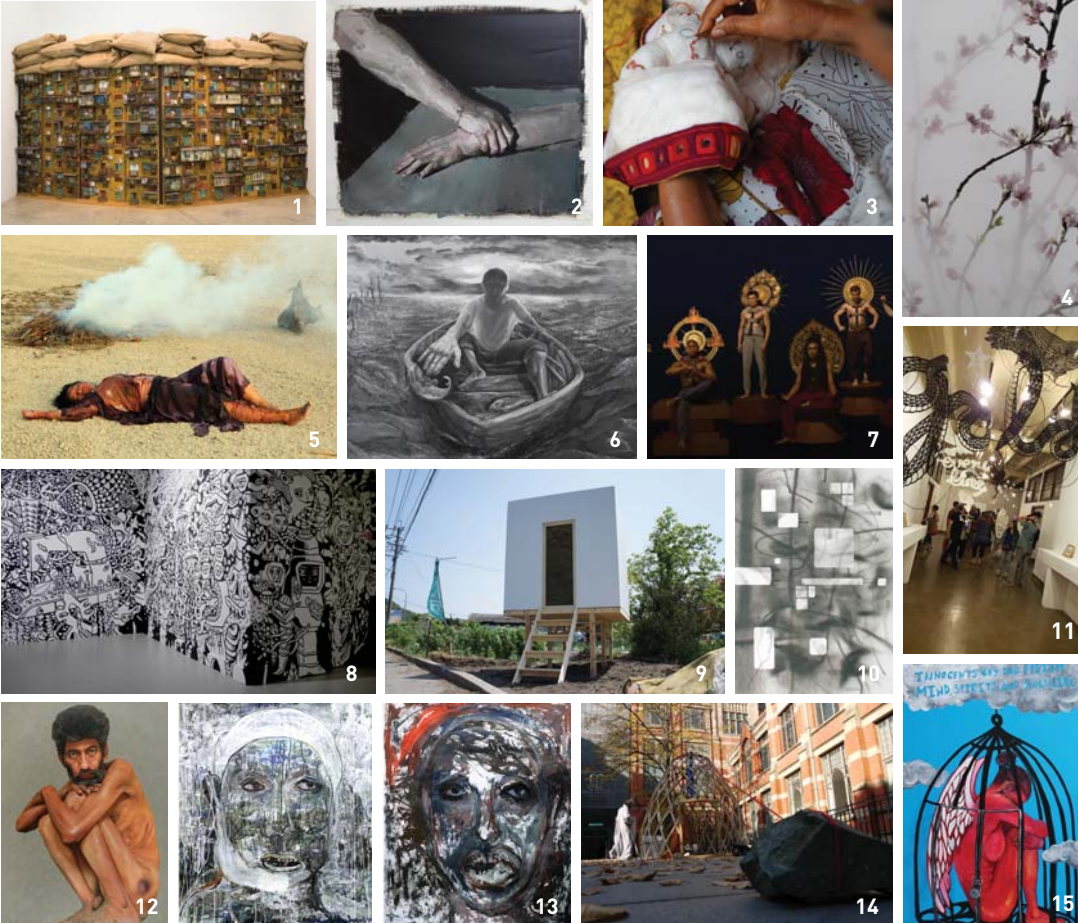
전북도립미술관
 Jeonbuk Museum of Art

JTV 전주방송

아시아현대미술전 2016

처음 아시아현대미술전을 개최했을 때 중요했던 화두는 아시아의 현대성이 어떻게 현대 미술로서 나타 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현대와 과정에서 생겼던 불평등, 독재, 빈부 차, 성적 차별,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면서 상실해왔던 정체성 등... 모든 문제가 미술로서 제기될 수 있었고 그것이 곧 현대 아시아의 가식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2016년 두 번째로 아시아현대미술전을 열면서 중요한 화두는 '아시아 청년 미술' 입니다. 14개국 36명의 작가 참여, 그래서 '아시아 청년 36'입니다. 아시아의 청년 미술은 곧 아시아의 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박진감 있고 뜨거운 열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다른 어떤 대륙보다 빠르게 변모하는 곳이지만 그중에서도 아시아의 청년 미술은 인체의 심장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 있고 희망이 있으며 더욱 더 활기차게,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라는 몸짓을 보입니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 그 생생하고 역동적인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립미술관장 장 석 원



Bangladesh
파르자나 아메드

China
넛 브라더
루 양

India
레슈마 나이크
만수르 알리
파라그 소나르가레

Indonesia
다르보츠
루디 아체 다르마완
우키르 수르야디

Japan
미야타 군페이

Korea
김기라
김남현
김영봉
박경중
박성수
박재연
박종찬
썬 김
안자산
유목연
윤성필
이가림
정희정
조해진
홍남기

Malaysia
저스틴 림
창 용 차아

Mongolia
엔호볼드 토그미드시레브

Myanmar
웅게 레이

Nepal
실라샤 라지반다리

Philippines
렉스터 페르난데스
에이즈 웅

Taiwan
우지충

Thailand
사이 완나폰 침방총

Vietnam
짠 타인 하
마인 흥 응우옌

1 마인 흥 응우옌 Manh Hung Nguyen 베트남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건물의 구조와 모양이 다르고, 사람의 생활 방식 또한 변화한다. 미술가는 베트남 사람의 삶과 전쟁에 관련된 아파트 건물, 바리케이드 등과 같은 이미지를 설치했다. 이것은 예술이라는 언어로 전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리케이드 나무, 종이, 플라스틱, 금속, 나일론 등 220×430×120cm 2013

2 안자산 Jisan Ahn 한국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공의 손과 발은 억압과 무력한 혹은 죽음과 삶을 대변하는 오브제다. 잡혀 있는 손이나 자유롭게 못 발은 현대사회의 불평등한 관계와 억압된 상황들을 제시하며, 나아가 자유롭게 못 한 자신의 모습도 담아내고 있다. 손목집기 캔버스에 유채 50×60.6cm 2016

3 실라샤 라지반다리 Sheela sha Rajbhandari 네팔

작품을 3개의 패널로 구성했다. 첫 번째 패널은 산티의 삶을 그렸고, 세 번째는 제이 쉬리 박사의 삶을 람바의 전통적 조각보 작업을 통해 완성했다. 두 번째 패널은 이들이 서로 만나는 경험으로 생리대와 자수를 매개체로 사용하여 강렬한 감정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다. 에도의 노래 생리대, 개인 옷, 판목 활판복 등 182.88×243.84cm 2014

4 우지충 Wu Chi-Tsung 대만

그림에 대한 소중함 가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하였다. 하지만, 이 기억이 작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모로 감정과 기억의 존재가 천천히 멀어지고 한 원에게 되어 그 모습이 모호해질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소멸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다. 정물 005-체리 영상 작품 1920×1080DP Full HD 23분 43초 2016

5 웅게레이 Nge Lay 미얀마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인간은 죽음 앞에 취약하다. 미술가는 배경이 조금씩 다른 곳에서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설정해서 촬영했다. 반복되는 작업은 죽음에 익숙해지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미술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죽은 자에서 자연을 관찰하기 #11 이야기비 매트 페도피에 걸려사자191×136cm 2011

6 창 용 차아 Chang Yoong Chia 말레이시아

미술가는 유희의 특성, 기쁨과 섞이지 않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무의식을 표면 위로 드러냈다. 그에게 그림은 생명과 상투수로 가득 찬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만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유지하지 못하는 녹한 나라의 여러 가지 느낌들을 다시 재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한 예술가의 삶 캔버스에 유채 66×85cm 2015

7 루 양 Lu Yang 중국

고대의 종교적 이미지들에 현대적 의미를 부여했다. 광배(光背)를 통해 신들과 인간을 확실히 구분하고, 관람객 스스로가 움직이는 신들이 되도록 설정했다. 더 나아가 현대의 과학적 사고와 초월적 존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움직이는 신들 HD Film 1920×1080DP 4분 43초 2015

8 렉스터 페르난데스 Dexter Fernandez 필리핀

가라타리는 미술가가 어린 시절 가른 개를 김밥시린 진드기이다. 이것은 그의 집을 잠령했고, 그는 이를 박멸하기 위해 개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미술가는 그라피티를 통해 본인이 직면적으로 겪었던 가라타리의 기원과 김밥, 지배력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나팔과 불꽃 벽에 아크릴릭 가변크기 2015

9 미야타 군페이 Kumpei Miyata 일본

일본의 지진 대비용 재난경보체제에 주목했다. 직접 지진을 겪은 미술가는 그 유용성을 의심한다. 경보로 인해 사람들은 공포에 떨지만, 지진의 피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다. 하지만 우리는 재난경보가 울리면 격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알람 나무판넌 스피커 가변크기 2016

10 박성수 Sungsoo Park 한국

미술가는 동시대를 반역의 시대로 정의한다. 모든 것에는 하나의 명제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명제가 존재하며, 그 사이에는 혼란과 안도감이 공존한다. 그는 여기서 발생하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선을 따라 비우고 있다. 경계가 모호하게 분절된 그림은 그 주체가 아닌 틈새를 담아내고 있다. 여백 002 화선지에 수묵 209×144cm 2016

11 루디 아체 다르마완 Rudy Atjeh Dharmawan 인도네시아

종교적 도그마나 법보다는 힘 자체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는 동물의 세계. 미술가는 동물의 기표만을 차용했다. 동물의 도상을 섬세하게 뽐내감한 후 투영기에 비추임으로써 인간과 천지 만물은 신 안에서 평등하고 현상적인 빈부 차이만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신들을 위한 고통학 직접 지른 종이와 비디오 가변크기 2016

12 파라그 소나르가레 Parag Sonarghare 인도

미술가는 사람이 살아 온 삶에 여정을 담고 있는 몸의 증례를 찬양한다. 다 계층, 인종 등과 같은 구분을 배제하고, 몸 그 자체의 표현을 위해 여러 색상과 색조를 풀어 신비한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작업이다. 무제 캔버스에 아크릴릭 244×183cm 2015

13 파르자나 아메드 Fazana Ahmed 방글라데시

현대의 관계성을 재해석하여 제시했다. 이 관계성 프로젝트는 '낯설게 하기 기법'(de familiarization)의 실험이다.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방법으로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관계성을 제안하고 있다. 일러진 일러지지 않은-2 종이에 혼합재료 120×58cm(각 120×100cm) 2014

14 엔호볼드 토그미드시레브 Enkhbold Togmidsheev 몽골

미술가는 유목 생활에 필요한 조목 공간, 동물 등의 상호작용이 중앙아시아의 유목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창의적인 마음과 영감을 일깨워 준다고 말한다. 미술관 밖 나의 집 퍼포먼스

15 사이 완나폰 침방총 Sai Wannaphon Chimbangchong 태국

예술은 자유를 찾기 위한 무기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미술가는 이러한 예술의 영역에 몸이 함께 사용된다면 부당한 통치자들에게 맞서 이상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몸, 나의 무기1 전인제한 파괴의 무기이고, 무고한 울부짖음과 별망 마음, 정신 그리고 영혼 캔버스에 아크릴릭 180×110cm 2013